

광주·전라 5만원권 환수율 저조...자취 감춘 신사임당

32%로 전국 평균 환수율 49%에 훨씬 못 미쳐 시중금리 하락 따른 화폐 보유 기회비 감소 영향

광주·전라지역 5만원권 환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화폐 보유 기회비용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2조원, 환수액은 5조8천억원

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49.1%로, 지난해 상반기 77.8%보다 28.7%포인트(p) 내렸다. 유통한 5만원권 중 환으로 돌아온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5만원권 환수율을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32.1%로 가장 낮았고,

수도권 79.7%, 광주·전라 32.1%, 대전·세종·충청 29.9%, 부산·경남 20%, 대구·경북 16.9%, 강원권 11.5% 순이었다. 통상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예금·세금 납부 등 형태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된다. 금융기관은 일부를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입금하는데 이때 돌아온 금액이 환수액이다. 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로,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만원권 환수율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 10~20%대까지 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면 거래가 줄어든 데다 경제 불확실성에 고액권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거래가 다시 활성화하고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환수율은 2022~2023년 50~60%대까지 올랐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만원권 환수율이 다시 떨어진 것은 시중금리 하

락에 따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중 금리가 떨어지자 예·적금 등에 현금을 넣기보다, 현금을 쥘수록 수익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3%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점차 상승해 11월에는 3.99%까지 올랐다. 은행 수신금리는 이후 하락해 지난 5월 기준 3.55%를 기록했다. 전용기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2022

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중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등 기회비용 상승 영향으로 금융기관 예금 경향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다시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화폐보유 기회비용이 낮아져 환수율도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5만원권은 예비비 목적, 가치 저장 목적 등도 있지만 화폐 본질적인 기능인 거래용으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임재만기자·연합뉴스

치매 어르신 안전망 구축 광주은행, 배회감지기 지원 후원

광주은행은 17일 "전날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대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치매 어르신 대상 배회감지기 지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매년 치매 노인 실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 노인들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은행은 3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배회감지기 1천여대와 스마트 태그 2천여대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며, 물품은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광역치매센터가 협력해 보급할 계획이다. /임재만기자



함께하는 '전통 음식체험' 17일 오전 광주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열린 '전통 음식체험'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완성된 바람떡을 살펴보고 있다. 남도향도음식박물관은 매주 가족단위 참가자를 모집,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을 운영 (광주북구 제공)

"지연 위기 서구 주택건설사업 정상 추진"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개최...집단민원 최종 조정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준공 지연 위기에 처한 광주 서구 쌍촌동 지역 주택건설사업이 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사(이하 '신청인')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피신청인')가 공사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공사 일정상 도로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자체가 지연돼 900세대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중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 소유 토지가 도로개설을 위해 제공될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탑승하는 호송 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의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소방안을 도출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사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하고, 피신청인은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인 광주시 서구에서 건물 증축과 도로개설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정상적인 공사수행을 보장하면서도 900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재만기자

광주신세계, 오늘 애니 '하이큐' 팝업스토어 연다

28일까지 사전 예약제... 피규어 굿즈 등 400여종 상품 판매

광주신세계는 17일 "오늘 18일부터 28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일본의 배구 만화 8년 간 연재되며 단행본부터 애니메이션까지 꾸준한 인기를 끈 '하이큐'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Together with HAIKYU!"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하이큐 1기부터 극장판까지 해외 상품과 국내 한정 굿즈(Goods)를 포함 400여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하이큐 특급 피규어 6종, GEM 시리즈 하이큐 테노하라 피규어(카게야마, 히나타) 2종 등 인기 피규어 상품과 HI NO 금속 책갈피 17종, PP포스터 2종 SET, 리우저블 백, 손목 스트랩 키링 14종 등 팝업 한정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입장은 네이버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1회차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하고 입장 후 25분 간 이용 가능하다. 1회차 예약 고객 대기 공간은 본관 1층 광장(텔보 앞)이며, 오전 10시부터 사전 예약 페이지 및 신분증 확인이 이뤄진다. 2회차부터 20회차까지는 행사장 입구에서 대기 후 시간에 따라 입장하면 된다. 현장 예약의 경우 사전 예약자 입장 후 유동적으로 진행되며 연락처 입력 후 메시지로 호출시 입장 가능하다. '하이큐'는 배구를 주제로 한 일본 작

가 후루다테 하루이치의 만화다. 고등 학교 배구팀의 성장과 도전이 주요 내용으로 단행본 총 45권과 애니메이션, 영화까지 출시될 정도로 국내외에서 인기가 뜨겁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하이큐 팝업스토어는 기존 팬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이색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 예약 후 현장에서 다양한 굿즈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슬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 **하루에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 **불필요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 **선풍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상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남도의 산해진미가 가득한

강진오일장터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후원 : 강진군문의 : 062)650-2099